

# 고대 도시로부터 중세 도시로 - 아미앵의 경우 -

박 용 진

- I. 서론
- II. 로마도시 아미앵
- III. 로마 제국 말기의 아미앵
- IV. 중세 도시로의 길
- V. 결론

## I. 서론

오늘날 프랑스 도시는 중세부터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로마시대의 도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한 편이다. 더욱이 피렌이 “중세 도시는 편력상인들의 발자국 위에서 태어났다”고 말했고, 자크 르 고프 역시 12세기 이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함으로써, 도시의 역사에서 중세 이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더욱이 중세 도시가 주요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거나, 농촌 마을로부터 확대된 것이라든가 하는 설명들은 고대 도시와 중세 도시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물론 개별 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고대도시와의 관련성이 주장되기도 했으나, 고대 도시로부터의 연속성은 강력하게 주장되지 못했다.<sup>1)</sup>

그러나 도시의 기원이나 성격을 하나의 모델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고대 도시에 관한 연구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대 도시에 대해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보다,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고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중세 도시와 관련을 갖게

1) 중세 도시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강일휴, 「서양 중세 도시사 연구의 시각과 쟁점」, 『사총』 제65호(2007.09), 29-58쪽.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고대 도시와 중세도시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대상으로서 적합한 도시는 로마 도시의 특성과 더불어 중세 도시의 특성도 잘 보여주는 도시이어야 할 것이다. 갈리아는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 정복되어 기원 후 1세기경에 본격적으로 로마문화가 전파된 지역이다. 특히 갈리아 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해 늦게 로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로마화는 늦게 진행된 데 비해, 라인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로마제국 말기에 게르만족이 먼저 침입한 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봉건제가 가장 먼저 성립된 곳도 북부 프랑스였으며, 오랫동안 남부 프랑스는 로마법이 우세했던데 비해 북부 프랑스는 관습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한마디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족의 영향이 적절하게 뒤섞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세 도시의 특징을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때, 중세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플랑드르 지역에 가까워서, 비교적 일찍부터 상업도시들이 출현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부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대 로마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세에도 상업도시로서 고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파리와 같은 도시는 고대 로마시대에 북부 갈리아에서 중요한 도시이기는 했으나, 중세 이후 파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만큼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진 도시는 아니었다. 반대로 바베(Bavai)와 같은 도시는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중세에는 평범한 마을로 전락했다. 고대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는 랭스, 루앙, 그리고 아미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미앵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아미앵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고대 로마시대의 아미앵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은 다른 도시에 비하면 꽤 많은 편이다. 고고학적인 발굴 역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고대 로마 시대의 아미앵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발굴은 2차 대전 당시의 폭격으로 인하여 파괴된 도시를 전후에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1945년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 까지 바셀(F. Vasselle)과 윌(E. Will)이 주도하여 발굴을 수행한 결과, 로마시대 도시의 서쪽부분이 드러났다.<sup>2)</sup> 두 번째 발굴은 1970년대에 도시를 리모델

2) E. Will, “Recherches sur le développement urbain sous l’empire romain dans le Nord de la France”, *Gallia*, no. 20(1962), pp.80-82; E. Will, “Amiens, ville militaire romaine”, *Revue du Nord*, t. 36(1954), pp.141-145; Ed. Frézouls, *Les Villes antiques de la France, t. 1, Belgique, Amiens, Beauvais, Grand,*

링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마시(J.L. Massy)와 바야르(D. Bayard) 그리고 데보르드(Desbordes)에 의해 수행된 이 발굴의 결과, 로마시대의 도시 대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 번째 발굴에 비해 도시의 규모가 좀 더 크다는 점, 로마 제국 말기의 성벽(castrum) 역시 바셀이 추정했던 것보다 두 배 가까이 크다는 점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sup>3)</sup> 이러한 고고학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시 아미앵이 어떻게 중세도시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더욱이 국내에는 로마 시대 갈리아의 도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대 로마 도시로서의 아미앵을 살펴보고, 이 로마 도시가 어떻게 중세 도시로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로마 도시 아미앵

라인강과 센강 사이 지역에 여러 켈트 부족들이 살게 된 것은 기원전 3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암비아니(Ambiani) 족, 수에시오네스(Suessiones) 족, 벨로바키(Bellovaci) 족, 모리니(Morini) 족 등 약 20여개 부족이 집단 거주지(oppidum)를 이루어 살았다.<sup>4)</sup>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아미앵이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기』 제 5권에서였는데,<sup>5)</sup> 이 기록이 로마화 이전의 아미앵에 대한 유일한 것이다. 그 당시의 이름은 사마로브리바(Samarobriua)로서 ‘숨 강의 건널목(le pont sur la Somme)’이라는 뜻이었다.<sup>6)</sup>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지역에 거주했는지 아니

*Metz*(Strasbourg, 1982); F. Vasselle et E. Will, “L’urbanisme romain à Samarobriua - Amiens”, *Revue du Nord*, t. 42(1960), pp. 341-345; F. Vasselle, “L’amphithéâtre romain d’Amiens”, *Hommages à A. Grenier*, t. III(Collection Latomus, t. LVIII, 1962), pp. 1587-1597.

- 3) J. L. Massy, “Les origines d’Amiens; essai de chronologie d’après les découvertes de céramiques ‘arétine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7(1980), p. 118; J. L. Massy, *Samarobriua Ambianorum*(Thèse de l’Université de Paris IV, 1977), pp. 81-83; J. M. Desbordes et J. L. Massy, “Le castrum d’Amien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2(1975), pp. 60-61.
- 4) 암비아니 족은 아미앵, 수에시오네스 족은 수아송(Soissons), 벨로바키 족은 보베(Beauvais), 모리니 족은 불로뉴(Boulogne-sur-Mer)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 5) J. 카이사르, 『갈리아 전기』, 박광순 옮김(범우사, 1997), 제 2권 4, 76-77쪽.
- 6) 숨 강의 라틴어 표기인 Samara와 건널목, 혹은 다리를 뜻하는 Briua를 결합한 말로

면 현재보다 약간 하류에 거주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sup>7)</sup>, 적어도 암비아니(Ambiani) 족이라는 골(Gaules) 족의 한 분파가 거주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잉글랜드) 원정을 위해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리옹을 거쳐 론(Rhône)강을 타고 북진한 후 트루아(Troyes)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브리타니아로 갈 수 있는 길은 솜 강을 타고 내려가 아브빌(Abbeville)에 도착한 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었다.<sup>8)</sup> 카이사르는 기원전 57년 사마로브리바를 처음 지나갔고, 일단 브리타니아에서 퇴각한 후 기원전 54년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철 군대 주둔지로 사용했다. 일단 퇴각하기는 했으나 다시 브리타니아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카이사르로서는 다시 브리타니아로 진출하기 위해 사마로브리바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카이사르가 이곳을 겨울 주둔지로 택한 것은 주변 지역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형적으로 남쪽의 고지대에서 솜 강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 솜 강 일대에 충적토 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부두를 설치하기 쉬웠다는 점, 솜 강을 통한 곡물과 사료공급이 용이하다는 점, 솜 강을 통해 브리타니아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 주변의 다른 골 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순했던<sup>9)</sup>

서 ‘Samarabriva’, 또는 ‘Samarobriga’라고도 쓰였다.

- 7) 현재의 장소에 사람들이 거주지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사마로브리바라는 이름이 켈트 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기원에 근거한 설명은 19세기에 유행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갈리아 전기에 대한 면밀한 해석의 결과, 카이사르가 사마로브리바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 갈리아 전기에서 단 5개의 지명, 즉 Admagetobriga(Alsace), Matisco(Mâcon), Portus-Itius (Boulogne), Agedincum(Sens), 그리고 Nemetocenna(Arras)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켈트족의 다른 거주지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곳에 거주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J. L. Cadoux, “La Picardie existe-t-elle dans l’Antiquité”, *Revue du Nord*, t. 78(1996), p. 210; J. L. Massy, *Samarobriua Ambianorum*(Thèse de l’Université de Paris IV, 1977), pp. 81-83.
- 8) 그러나 카이사르가 실제로 솜 강을 통해서 아브빌을 거쳐 브리타니아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아미앵에서 아브빌을 거쳐 가는 길은 불로뉴까지 90~100Km이므로 이 길보다는 아미앵에서 크레피(Crépy)를 거쳐 불로뉴와 칼레 사이의 조그만 마을인 상가트(Sangatte)에 이르는 길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 9) E. Will, “Amiens, ville militaire romaine”, *Revue du Nord*, t.36 (1954), pp. 141-145. 오늘날의 보베에 자리 잡고 있던 벨로바키(Bellovaci)족은 매우 호전적이어서 그 이름에서조차 ‘호전적(bellum)’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였다. 이에 비해 암비아니 족은

암비아니 족을 상대하기가 쉬웠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후 로마는 갈리아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화를 진행시켰고 아미앵을 비롯한 피카르디 지방 역시 로마화되었다. 본격적인 로마화의 과정은 아우구스투스 치세부터였다. 기원전 27~19년 아우구스투스는 아그리파로 하여금 북부 이탈리아에서 리옹을 거쳐 불로뉴에 이르는 군사도로인 아그리파 도로(Via Agrippa)<sup>10)</sup>를 건설하도록 했고 이 도로를 통하여 국경지대인 브리타니아와 라인 강으로 군대를 보냈다. 43년 클로디우스 치세부터 본격적인 브리타니아 침공이 시작됨에 따라 아그리파 도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클로디우스와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이 도로의 주요지점에 도시 로마와 같은 형식의 ‘격자형 도시(Roma quadrata)’가 건설되었다. 상리스(Augustomagus), 수아송(Augusta suessionium), 보베(Caesaromagus), 아미앵(Samarobriua), 생-캉탱(Augusta Viromadurum) 등 갈리아 북부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건설된 것도 이때였다.<sup>11)</sup>

도시 건설이 완료된 이후 로마는 갈리아의 행정구역을 재편했는데 사마로브리바는 “[숨 강] 양쪽(ambi-)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암비아니(Ambiani)라는 부족의 중심지로서 벨리카 세쿤다(Belgica secunda)에 속했다.<sup>12)</sup> 그리고 1세기 이후부터는 도시 이름 대신 그곳을 주거지로 삼고 있는 부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이곳은 사마로브리바라는 이름대신 암비안(Ambian) 혹은 암비아니(Ambiani)라고 불리게 되었다.<sup>13)</sup> 이후 발음의 편의

기본적으로 상업부족이었다. J. L. Cadoux, “La Picardie existe-t-elle dans l’Antiquité”, *Revue du Nord*, t. 78(1996), p. 220.

- 10) 아그리파 도로는 북부 이탈리아에서 리옹, 랑그르를 거쳐 보베를 지나 아미앵에 이르고 여기서 불로뉴까지 연결된 도로망을 말한다. 이 도로는 기원전 39-37년 사이에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 아그리파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P. Leman, “Des Alpes à l’Ocean”,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fouilles archéologiques de l’Yonne*, no. 5(1988), p. 33.
- 11) 사실 도시가 건설된 지역은 과거로부터 골 족의 집단거주지(oppidum)였던 곳이 많았다. 따라서 본문에서 ‘로마가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골 족의 중심 거주지에 로마식의 ‘격자형 도시’를 건설하고 경기장, 목욕탕, 광장 등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도시의 중심부는 격자가 불규칙적인 부분이 있는 도시가 많다.
- 12) 따라서 정식명칭은 암비아니 족의 사마로브리바(Samarobriua Ambianorum)이다.
- 13) 오늘날의 보베(Beauvais)의 경우 로마가 도시를 건설할 당시 카이사르마구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벨로바키(Bellovacii)족의 중심지였으므로 벨로바키, 혹은 벨바키로 불렀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부족이 호전적이고 사나워서 ‘전쟁’을 뜻하는 Bellum이라

를 위해 ‘b’가 탈락하여<sup>14)</sup> 아미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로마에 의해 정복된 아미앵은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격자형 도시로 건설되었다. 로마시대의 아미앵은 격자형 구조를 가진 도시로서 9개의 남북도로(cardo)와 8개의 동서도로(decumanus)로 이루어져 있었다.<sup>15)</sup> 이 도로들 중 남북 4번 도로와 동서 5번 도로는 각각 남북대로(cardo maximus)와 동서대로(decumanus maximus)로서, 상리스에서 불로뉴, 보베에서 바베와 쾰른(Köln)에 이르는 도로와 일직선상에 놓여있으며, 도시를 각각 절반으로 나누고 있다.<sup>16)</sup> 각 도로가 교차하면서 사각형의 격자를 만들어 내는데, 그 크기에 따라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북동쪽의 경우 125×160미터의 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곽으로 160×160미터(또는 170미터)의 격자가 둘러싸고 있다. 특히 이 도로들은 루테시아(Lutetia, 파리)가 북부 갈리아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루앙-파리-아미앵-쾰른을 잇는 도로와 리옹-트루아-프로뱅-아미앵-불로뉴-브리타니아를 잇는 도로로 연장되었고, 아미앵에는 변경지방으로 나가는 군대와 물자가 집중되었다.

는 라틴어의 접두어 형태인 bello-라는 접두어를 붙인 것인데,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을 뜻하는 라틴어 ‘bella’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 ‘beau-’라는 접두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 아트레바티(Atrebati)족의 중심지는 아라스로, 수에소니 족의 중심지는 수아송으로, 레미족의 중심지는 랭스로 바뀌었다. 이와는 달리 비로만두이(Viromandui)족의 중심지는 베르망두아로 바뀌었는데 중세에 이르러 베르망두아라는 도시는 없어지고 그 옆에 생캉탱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들어섬으로써 베르망두아는 지방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

- 14) m, n 뒤에 나오는 b가 발음 상 어렵기 때문에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 15) 단, 동서 도로의 경우 북쪽에서는 125미터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160미터로 늘어나는데, 이는 아미앵이 원래 로마가 계획했던 도시의 규모보다 확대되었다는 증거이다. E. Will, “Recherches sur le développement urbain sous l’empire romain dans le Nord de la France”, *Gallia*, no. 20(1962), pp. 80-82.
- 16) 이 도로는 로마시대에 아미앵의 중심도로로 자리 잡은 이후 중세에도, 심지어 오늘날 까지도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F. Vasselle et E. Will, “L’urbanisme romain à Samarobriua - Amiens”, *Revue du Nord*, t. 42(1960), pp. 341-345. 그리고 동서도로는 해가 뜨는 방향과 일치한다. J. L. Massy, “Les origines d’Amiens essai de chronologie d’après les découvertes de céramiques ‘arétine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7(1980), p.118; D. Bayard et J. L. Massy, *Amiens romain: Samarobriua Ambianorum*(Amiens: Revue archéologique de Picardie, 1983),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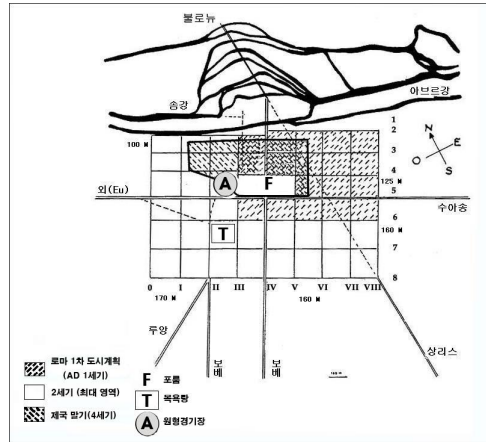


그림 1. 로마 시대의 아미앵

출전: Vasselle, François, "L'amphithéâtre romain d'Amiens", *Hommages à A. Grenier, t. III* (Collection Latomus, t. LVIII, 1962), p. 1589.  
단, 제국 말기 영역은 1970년대 발굴성과를 적용함.

이러한 로마의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의 전체 면적을 계산하면 로마의 전성기에 아미앵의 면적은 100헥타르 정도였다. 도시 내부에는 원형경기장, 극장, 공동목욕탕, 그리고 포룸(forum)이 있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경기장의 규모는 갈리아 북부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로서 타원의 긴 지름이 113미터, 짧은 지름이 95미터였는데, 이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sup>17)</sup> 이로 미루어볼 때 아미앵은 인구 15,000명

17) D. Bayard et J. L. Massy, *Amiens romain: Samarobriva Ambianorum*(Amiens: Revue archéologique de Picardie, 1983), pp. 16-17. 바셀(F. Vasselle)에 따르면 "경기장 전체 면적이 8,800 m<sup>2</sup> 인데, 그 중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곳을 제외하면 7,000 m<sup>2</sup> 가 남는다. 1 m<sup>2</sup>에 2명이 앉는 것으로 계산하면 14,000명이 관람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통로를 제외하면 12,000명 정도 된다. 이 수치에 근거하여 전성기의 인구를 추정해보면 약 15,000명 정도가 나온다." F. Vasselle, "L'amphithéâtre romain d'Amiens", *Hommages à A. Grenier, t. III*(Collection Latomus, t. LVIII, 1962), pp. 1587-1597.

이상의 도시로서 북부 갈리아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아미앵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카르디는 브리타니아 침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경선인 라인 강변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아미앵은 두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의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브리타니아와 라인 강변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군대와 군수품이 머무르는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했으며 이처럼 이동하는 군대 이외에도 약 만 명의 로마군대가 주둔했다. 이에 따라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아미앵은 브리타니아 및 갈리아 북부의 루앙은 물론이고, 심지어 갈리아 남부 지방까지 교역을 했다.<sup>18)</sup> 즉, 아미앵은 일찍이 상업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미앵의 지리적 요소, 즉 교통의 요충지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요컨대 지리적으로 보아 아미앵은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로마시대에 아미앵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에서 뚜렷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III. 로마 제국 말기의 아미앵

3세기부터 시작된 로마의 쇠퇴와 더불어 아미앵 역시 쇠퇴하였는데, 그 첫 번째 지표는 인구였다. 이미 2세기 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161-180)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3세기 초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치세(193-211)에는 각종 화재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60년부터 시작된 게르만족의 침입은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켰다. 특히 275-276년 사이에 있었던 프랑크족과 알라마니족의 침입으로 도시의 면적은 20헥타(ha)로 줄어들었고, 인구 역시 2~3,000명을 넘지 못했다. 각종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은 두꺼운 성벽 안으로 모여들었고, 원형 경기장은 성채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포룸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좋은 방어시설이 되었다.<sup>19)</sup> 그리고 이러한 방어시설을 연결하여 북쪽으로는 아브르(Avre) 강, 동쪽으로는 대성당, 남쪽으로는 원형 경기장을 경계로 한 성벽(castrum)이 만들어졌

18) 발견되는 화폐를 근거로 추정할 때 아미앵의 주된 교역도시는 루앙이었다.

19) 성벽은 두께 3.8m, 높이 십 수 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었다. F. Vasselle et E. Will, "L'urbanisme romain à Samarobriva - Amiens", *Revue du Nord*, t. 42(1960), pp. 345-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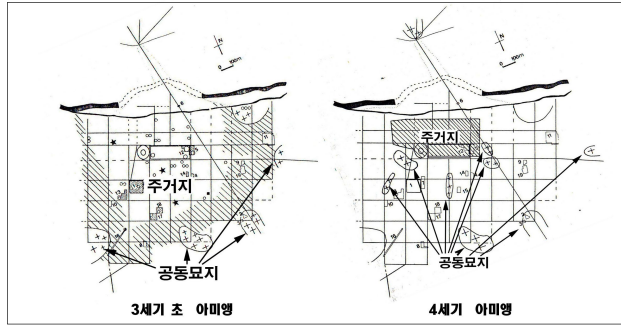


그림 2. 3세기 초와 4세기의 아미앵 비교

출전: Bayard, Didier et Jean-Luc Massy, “Amiens romain: étude sure le développement urbain du 1er siècle av. J.C. au V<sup>e</sup> siècle ap. J.C.”, *Revue du Nord*, t. 64(1982), pp. 21-22.

다.<sup>20)</sup> 성벽이 샬리스-블로뉴를 잇는 중심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국 말기의 아미앵은 비록 그 영역이 축소되고 상공업 기능도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라인 강, 브리타니아, 서부 갈리아로 진출하는 길목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전히 군대를 수송하는 중심지로서,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방어를 위한 요새로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세기 후반 콘스탄티누스 황제 사후(死後) 투르네(Tournais)를 거점으로 하는 살리족이 침입하여 솜 강을 경계로 국경이 형성되었고, 5세기 초에는 로마가 갈리아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아미앵은 게르만족의 침입에 내맡겨졌다. 406년 대규모의 게르만 족이 아미앵을 휩쓸었고, 486년에는 시아그리우스 왕국(Royaume de Syagrius)에 합병되었다가 그 이후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Clovis)가 수아송까지 진출하면서 아미앵은 프랑크족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미앵의 상업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20) 이 성벽은 12세기 말에 이르러서 ‘필립 존엄왕의 성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성벽이 축조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필립 존엄왕의 성벽조차 남쪽과 서쪽은 이 성벽을 그대로 사용했다. J. M. Desbordes et J. L. Massy, “Le castrum d’Amien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2(1975), pp. 60-61. 성벽은 4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성 마르티노에 관련된 전설은 이 성벽의 존재를 확인해 주고 있다.

보이지는 않는다. 779년 샤를마뉴(Charlemagne)는 생 제르맹 데 프레(Saint-Germain-des-Prés) 수도원이 파리, 트루아, 블로뉴, 루앙 그리고 아미앵 등 샤를마뉴 제국의 북동부의 주요 도시에서 상업거래에 관련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내렸는데, 이 기록은 이들 도시 사이에 과거처럼 활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업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이 곧바로 중세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바이킹의 침입으로 고대의 도시들은 그 영역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을 포기하고 농촌과 다름없는 단순한 주거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북부해안에 가깝고 항해에 능한 바이킹이 솜 강을 거슬러 올라왔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미앵은 바이킹의 침입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 시기의 문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몇 가지 편린들만을 통해서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1057년 국왕 앙리 1세는 예로부터 자유로운 특권지역이었던 성당참사회의 경내가 바이킹의 약탈로 자유와 특권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는 문서를 내렸다.<sup>21)</sup> 또한 10세기 경 아미앵에서는 화재가 빈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재앙 역시 단순한 화재라기보다는 바이킹에 의한 방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이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이킹의 침입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미앵은 고대부터 군사적으로나 상업에 있어서나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갈리아 북부에서 중요한 도시로 등장했다. 한 때 1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였으나 로마제국의 해체 및 뒤이은 혼란으로 상업이 단절되고 영역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지리적 요충지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고, 이 요소는 아미앵이 중세의 상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IV. 중세 도시로의 길

##### 1. 기독교의 전파

그렇다면 바이킹의 침입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을까? 중세도시들 중

21) A. Thierry, *Recueil des monuments inédits de l’histoire du Tiers Etats*(Paris: F. Didot, 1850-1870), vol. 1, no. 1.

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도시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미앵의 경우는 아니다. 많은 중세도시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형성되었고, 주교좌가 있는 도시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sup>22)</sup>

아미앵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3세기로 추정된다. 아미앵의 기독교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로마군단의 기병이었던 성 마르티노(Sanctus Martinus, Saint Martin)의 개종에 얽힌 전설이다. 로마 군단의 기병이었던 마르티노는 아미앵의 성문 밖에서 만난 거지에게 자신의 망토의 일부를 잘라 주었는데, 그날 밤 밝은 광채와 함께 현현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거지가 다름 아닌 하느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마르티노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후일 성자가 되었다. 성 마르티노의 개종에 관한 언급이 최초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그의 보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므로, 이미 아미앵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3)</sup> 성 마르티노 이전의 전설로는 성 피르미노(Firminus, Saint Firmin)의 순교에 관련된 전설이 있다. 성 피르미노는 아미앵의 주교로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했는데,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이 순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치세의 박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따라서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디오클레티아누스 치세 이전인 3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 피르미노의 전설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인의 기적에 대한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확산된 것이 9세기경이며, 피르미노라는 이름의 성인이 인기를 얻은 것도 8세기 말 경이기 때문이다.<sup>25)</sup> 신빙성 있는 기록에 근거한다면 최초의 주교는 4세기의 에올로기우스(Eulogius)였으며 아미앵에 최초의 교회가 들어선 것도 4세기 말경으로 생각된다.<sup>26)</sup>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고해자 성 피르미노

22) G. Duby,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Paris: Seuil, 1983), t. 1, pp. 423-424.

23) J. L. Massy, *Samarobriva Ambianorum*, pp. 374-376.

24) 성 피르미노의 순교에 대한 연대 추정은 그레구아르 드 투르(Grégoire de Tours)의 『프랑크족의 역사』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250년 투르에서 사망한 성 사투르니노(Sanctus Saturninus)가 성 피르미노의 부모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언급과 그 이후의 대규모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치세에 있었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J. L. Massy, *Samarobriva Ambianorum*, p. 374.

25) C. Pietri, “Remarques sur la topographie chrétienne des cités de la Gaule”,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t. 62(1976), p. 194.

26) 성인전에 따르면 최초의 교회는 성 피르미노에게 봉헌된 교회이며 그 옆에 다른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중세시대에 아미앵 대성당 옆에 “쌍둥이 교회”라는 뜻의 “생 마르

(Saint Firmin le Confesseur)’ 주교 이후 200년 동안의 주교 명단은 여전히 신빙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sup>27)</sup> 주교직이 확실하게 승계된 시기는 7세기였으며, 이 시기부터의 주교 명단은 다른 자료와 비교해보더라도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교회가 세워지거나 기독교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그 자체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삶으로써 집단거주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도시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4세기에 성 아셰(아킬레우스 Saint Ache, Saint Acheul)가 순교한 곳에 기독교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거주했다는 것이다. 성벽 바깥(extramuros) 쪽에 아셰라는 지명이 있고, 그곳에 4~5세기경의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가 있으므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4세기경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벽 바깥에 존재했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든가 바이킹의 침입과 같은 혼란기 동안 안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혼란기에는 성벽 안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셰의 기독교 공동체를 도시의 형성과 관련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sup>28)</sup>

탱-오-쥐모(Saint-Martin-aux-Jumeaux)”교회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초의 교회 옆에 생 마르탱 오 쥐모라는 이름의 새로운 교회건물을 신축했고, 그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있던 자리에 대성당을 건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J. Foucart, “L'église Saint-Firmin le Confesseur et la cathédral d'Amiens”, *Le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7(1980), pp. 301-310. 갈리아 북부의 주요 도시들, 예컨대 쾰른(Köln), 샬롱(Châlons), 수아송(Soisson), 상리스(Senlis) 등지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 역시 4세기경이었으므로,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아미앵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 역시 주변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4세기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L. Duchesne, *Fastes épiscopaux de l'ancienne Gaule*, t. 3 (Paris: E. de Boccard, 1915), pp. 9-10.

27) ‘고해자 성 피르미노’ 이후 511년 에디비우스(Edibius) 사이에 레오다르두스(Leodardus)와 오두앵(Oduin)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다. 주교의 명단은 Peltier, H., *Histoire religieuse de la Picardie*(Abbeville, 1961)를 참조하라.

28) C. Pietri, “Remarques sur la topographie chrétienne des cités de la Gaule”,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t. 62(1976), p. 194. 피르미누스라는 이름의 주교가 4~6세기 사이 누아용 가는 길 근처에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보았다. 이 교회가 나중에 성 아셰가 되었다. 그러나 이곳이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4세기 이후에는 묘지로 사용하였고, 6세기부터는 성벽 내(intramuros)에 비교적 큰 규모의 성당이 생겼다. 도시 중심에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대개 묘지에서 비밀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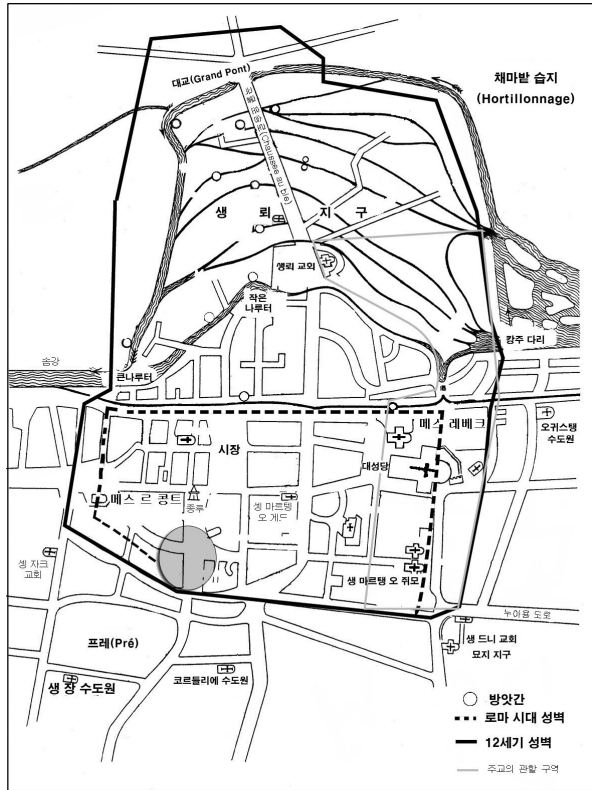


그림 3. 12세기 아미앵

출전: J. Massiet du Biest, *La carte et le plan considérés comme instruments de recherche historique*(Tours, 1954), carte 2의 지도를 토대로 작성

아미앵 시내(intramuros)에 교회가 건축된 것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사이로 기록되어 있다.<sup>29)</sup> 성인전은 이 교회가 성 피르미노에게 봉헌된 교회이며

가 열렸다. 결국 교회는 성벽(castrum) 내에 건축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팽창하여 성벽 밖으로 진출한다. 랭스도 아미앵과 비슷하다.

29) L. Duchesne, *Fastes épiscopaux de l'ancienne Gaule*, t. 3, pp. 9-10. 쾰른, 수아송, 샬롱(Châlon), 상리스, 마인츠(Mainz, Mayence), 캄브레 등 갈리아의 주요 도시들에

그 옆에 다른 교회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생 피르맹 교회 근처에 ‘쌍둥이 교회’라는 뜻의 생 마르탱 오 쥐모 (Saint-Martin-aux-Jumeaux)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최초의 교회가 생 피르맹 교회(Saint-Firmin-le-Confesseur) 이고 그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쌍둥이 교회라고 불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근처에 현재의 대성당 (Cathédral Notre-Dame d'Amiens)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먼저 세워졌던 교회 자리에 주교 교회를 새로 세우고 원래의 교회를 그 옆으로 옮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sup>30)</sup> 즉, 기독교는 주교 교회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화의 진행은 시내 중심부로부터 외곽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실하다. 처음 기독교도들의 비밀집회 장소가 성벽 너머의 성 아셰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주교 교회가 성벽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교좌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공동체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묘지 역시 성벽 바로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성벽 내부의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전파가 급속히 진행된 것은 아닌 듯하며, 교회가 건축되고 기독교가 조직화된 것도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 주교 교회가 건축된 것은 6세기 말이며 또 다른 생 피르맹 교회는 850년경에 세워졌다. 그리고 성인에 관한 각종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된 것도 9세기였고, 특히 ‘피르맹’이라는 성인의 이름 역시 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교회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sup>31)</sup> 시내에 주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빨라야 8세기 말, 혹은 9세기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 10세기부터 11세기 말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결과 아미앵 교구 내의 교회는 주교 교회인 노트르담 교회<sup>32)</sup>, 생 피르맹 아 라 포트(Saint-Firmin-à-la-Porte) 교회, 생 제르맹(Saint-Germin) 교회, 생

교회가 세워진 것도 4세기였다.

30) 대성당과 생 피르맹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J. Foucart, “L'église Saint Firmin le confesseur et la cathédral d'Amiens”, *Le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7(1980), pp. 301-310.

31) C. Pietri, “Remarques sur la topographie chrétienne des cités de la Gaule”,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t. 62(1976), p. 194.

32) 주교 교회는 생 피르맹 교회를 옮기고 10세기에 새로 건축했다. 그러나 13세기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1218년 그 자리에 현재의 대성당을 건축했다.

피르맹 고백자 교회, 생 니콜라(Saint-Nicolas) 교회, 생 마르탱 아 라 포르트(Saint-Martin-à-la-Porte) 교회 등 6개에 이르게 되었다.

한 마디로 기독교는 8~9세기 이후에야 아미앵에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11세기까지 매우 느리게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도시의 형성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시기와 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11세기에 이르러서야 교회의 신축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새로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 성벽 내부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은 11세기, 혹은 그 직전에서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거주지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성벽 내부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정도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 2. 백작령의 성립

주교에 뒤이어 아미앵에 성립된 권력은 백작이었다. 백작은 원래 메로빙 왕조시대에 지방에 파견된 순찰사(missi)였으므로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임지를 옮겨야 했으나, 바이킹의 침입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지방의 유력자가 그 임무를 대신하게 되었다.<sup>33)</sup> 한마디로 백작은 국왕의 관료에 불과했으므로 그 권력도 미약했다는 것이다. 아미앵 백작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9-10세기를 지나면서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9세기와 10세기에 걸쳐 아미앵 주변에는 플랑드르 백작령, 노르망디 공작령, 에노(Hainaut) 백작령, 베르망두아(Vermandois) 백작령 등 비교적 큰 제후령이 형성되고, 일 드 프랑스에는 왕권이 들어선 반면, 아미앵을 비롯한 피카르디 지방에는 어떠한 제후의 권력도 형성되지 못한 채 이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플랑드르 백작과 에노 백작으로서는 남쪽으로 진출하는 출구로서, 노르망디 공작으로서는 센 강 상류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그리고 국왕 역시 동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피카르디를 반드시 차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균형추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즉, 왕권은 미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고, 노르망디 공작이나 플랑드르 백작 역시 국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피카르디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군소 영주들조차 무리를 이루어 국왕에게 대항하

33) J. F. Lemarignier, *La France médiévale*(Paris: A. Colin, 1980), pp. 92-95.

기도 했다. 그 결과 10세기 전반 제후들의 대립과 균형은 서부 피카르디 중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백작령이 성립되지 않은 아미앵과 그 일대로 집중되었다. 이리하여 10세기부터 한동안 국왕-로베르 가-주교를 한 편으로 하고, 베르망두아 백작-플랑드르 백작-지방영주를 다른 편으로 하여, 이들 사이에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10세기 전반 플랑드르 백작의 지원을 받은 베르망두아 백작 에르베르(Herbert II de Vermandois)는 925년부터 아미앵 백작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932년 프랑스 공작인 로베르 가문(Robertiens)의 위그 르 그랑(Hugues le Grand, Hugues Capet의 아버지)이 아미앵을 점령함으로써 아미앵 백작 직위는 한 때 로베르 가문으로 넘어갔으나, 곧이어 에르베르의 아들 외드(Eude)가 반격하여 아미앵 백작 직위를 되찾아 왔다. 그 이후 국왕이었던 루이(Louis IV d'Outremer)가 개입하였고, 주교가 위그 르 그랑과 결탁했으며, 아미앵 근교의 지방영주들이 에르베르 편에 가담함으로써, 상황은 한층 복잡하게 되었다. 마침내 965년 국왕 로타르(Lothaire)가 발루아 백작 고티에(Gauthier de Valois)를 아미앵 백작에 앉힘으로써 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074년 백작이 된 시몽 드 발루아(Simon de Valois)가 1077년 수도사가 되자, 백작 작위가 공석이 되었고, 아미앵 일대는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12세기 초 앙게랑 드 보브(Enguerrand de Boves)라는 일개 지방영주가 백작이 되었다.<sup>34)</sup> 말하자면 “혼란 상태를 이용한 지방영주의 권력 장악”이라는 봉건화 과정을 거쳐 아미앵 백작의 권력이 독립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작의 관할 구역(comté)은 앞서 말한 ‘메스-르-콩

34) 어떻게 해서 일개 지방 영주에 불과한 앙게랑이 백작 직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1077년까지 아미앵-발루아 가문의 아들들이 백작과 주교직을 가지고 있었고, 주교직은 그 이후에도 한 동안 이 가문에서 배출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추측해 보면, 백작의 돌연한 은퇴 이후 그의 형제인 퐁티외 백작이 백작 직위를 대신 가지고 있다가 1091년 이후 어느 시점에 퐁티외에 전념함으로써, 아미앵 백작 직위는 공석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앙게랑 드 보브가 공석이 된 백작 직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개 지방 영주에 불과한 앙게랑은 백작 직위를 찬탈한 이후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미앵-발루아가의 후손인 주교에게 봉신으로서 신서했을 가능성이 높다. 12세기의 문서들은 백작이 주교에게 봉신으로서 신서를 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백작이 주교의 봉신이 된 예를 아미앵에서 가까운 수아송(Soisson)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이러한 설명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트'를 비롯해 시내의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아미앵 시내 이외에도 콩티(Conty)와 보브(Boves) 등 주변의 영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 성주(châtelain)와 주교 대리기사(vidame)가 소규모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성주는 아미앵시내에 있던 성채(Castillon)의 성주로서 고대의 원형경기장이 도시를 방어하는 성채로 사용되면서 그곳을 담당했던 군대 지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35)</sup> 바이킹의 침입으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성주가 도시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으나 점차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한편, 주교 대리기사는 주교의 봉건적 의무를 대신해주고 주교로부터 약간의 봉토를 부여받은 기사였다. 그의 권리는 도시의 중심부와 서쪽에 있는 약간의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양모의 도량형권(droit de poids et mesures)에 불과했다. 따라서 성주와 주교 대리기사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세 초 아미앵에는 주교, 백작, 성주, 그리고 주교 대리기사 등 4명의 공동영주(co-seigneurs)가 존재하는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주교와 백작이 가장 영향력 있는 영주였다.

요컨대 10~11세기에 이르게 되면 주교와 백작, 즉 교권과 속권이 아미앵에 성립되었다. 시내 동쪽 편에 있는 “메스-레베크(Metz-l'Évêque, 주교의 영지)”<sup>36)</sup>와 서쪽 편에 있는 “메스-르-콩트(Metz-le-Comte, 백작의 영지)”라는 지명은 주교와 백작이 도시를 양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3. 상업도시로의 변화

아미앵은 한편으로는 직물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밀집해 있는 플랑드르에 인접해 있어서 직물업이나 직물 관련 산업이 발달할 위치에 있었고, 그 반대편으로는 왕국의 수도인 파리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 최대의 정기시가 열렸던 샤프뉴가 근거리에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양모의 생산지인 잉글랜드가 있었으므로 상업이 발달할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요건은 이미 로마시대의 도로 구조나 상업망, 혹은 군사적 역할에 반영되어

35) J. Massiet du Biest, “Les châtelains d'Amiens de la maison de Flixecourt-Vignacourt, leur forteresse urbaine, leurs fonctions, leurs domaines urbains et ruraux”, *Revue du Nord*, t. 38(1956), pp. 143-145.

36) ‘메스’라는 단어는 라틴어 ‘manere’, 혹은 ‘mansus’에 기원을 둔 말로서 현대 불어로는 ‘저택’, 혹은 ‘영지’라는 뜻의 ‘manoir’이다. J. F. Niermeyer, *Mediae Latinitatis lexicon minus*(Leiden: E.J. Brill, 1976) 참조

있었다. 그러나 로마의 도로망이 대제국의 유지를 위해 대도시와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것이었다면, 중세의 도로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와 주변 농촌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의 상업망이 그대로 중세까지 연결되는 않았던 것이다.

중세 도시의 발달은 주변 농촌의 생산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주변 농촌의 생산력이 향상된 결과,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해 수도원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므로<sup>37)</sup> 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농촌이 지속적으로 곡물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즉 도시가 단순한 주거 밀집지역을 넘어서 상공업을 경제적 원천으로 삼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비농업 세력인 상공업자들을 부양할 만한 곡물을 주변 농촌이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했다.<sup>38)</sup> 따라서 도시와 농촌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sup>39)</sup>

이러한 형성과정을 기록해 놓은 문서는 없으나, 몇 가지 지표로 통해서 아

37) 아라스, 보베, 그리고 랑과 같은 도시 역시 각각 생 소비르(Saint-Sauveur) 교회, 생 뤼시앵(Saint-Lucien) 교회, 그리고 생 뱅상(Saint-Vincent)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확대되었다. 농촌의 인구 과잉은 성벽이 있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초래했고, 새로 유입된 인구는 대개 성벽 바로 바깥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개 출신지역별로 집단을 이루어 거주했다. R. Fossier, *Histoire de la Picardie*(Toulouse: Privat, 1974).

38) 그 이외에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소위 “수송혁명”이다. 즉, 어떻게 잉여 농산물을 도시에 제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곡물을 도시로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 역시 발달해야 한다. 생 토메르의 예를 들자면, 11세기 초에 바퀴 4개 달린 중량 마차가 사용되었으며 이 마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세 초의 치안을 생각한다면 성벽의 존재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h. Wolff, “Les villes de la France au temps de Philippe Auguste”, Robert-Henri Bautier(dir.), *La France de Philippe Auguste*(Paris: Editions du C.N.R.S., 1982), p. 656; A. Derville, *Saint-Omer: Des origines au début du 14<sup>e</sup> siècle*(Villeneuve-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995).

39) 이점에 있어서 피렌은 도시가 형성되고 그에 필요한 곡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후를 바꿔 생각한 것이다. 먼저 농촌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한 이후에야 농촌의 과잉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맨 처음에는 곡물의 교환장소로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곳에 도시가 발달했다고 보아야 한다. H., Pirenne, 『중세 유럽의 도시』, 강일휴 역 (서울, 1997) 참조.

미앵이 중세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인구가 11세기에 들어서서 성벽 안으로 유입되었다. 아미앵의 경우 11세기 들어 성채(rampart)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음을 암시하는 여러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반에 걸쳐 생 마르탱 교회(l'église Saint-Martin)와 생 마르탱 오 부르 교회(l'église Saint-Martin-aubourg)가 재건축 되었으며, 기존의 생 마르탱 오 쥐모 교회(l'église Saint-Martin-aux-Jumaux) 옆에 새로운 교회인 생 니콜라 교회(l'église Saint-Nicholas)가 세워졌고, 12세기 초반에는 생 레미 교구가 분할되었다. 이는 모두 인구의 증가에 의해 과거의 작은 교회로는 교구민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해석되며, 특히 상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던 교구에 세워진 쌍둥이라는 의미의 교회인 생 마르탱 오 '쥐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인지구로의 유입이 많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다<sup>40)</sup> 이러한 교회의 확대를 지도(그림2)상에서 확인해 보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곳은 주교좌 근처였으며 그로부터 점차 확대해 나갔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생 마르탱 오 쥐모 교회를 지나면 바로 생 드니 교회의 묘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묘지가 도시의 외곽의 비(非) 주거지역에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아용 도로(Chaussée de Noyon) 근처에서 남쪽으로의 확대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개의 수도원이 주거지와는 떨어진 곳에 설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지의 확대 범위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동쪽으로 대성당 길 건너의 오귀스탱(Augustins) 수도원, 남서쪽의 코르들리에(Cordeliers) 수도원과 생 장(Saint-Jean) 수도원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남서쪽에는 숲이 있고 그 옆으로 개간지를 뜻하는 '프레(Pré)'라는 지명이 있는 점 역시 주거지의 확대가 그곳에서 멈추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지점들을 연결해보면 확대된 주거지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그 경계선은 로마 시대의 성벽과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안전을 위해서도 성벽 내부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확대는 처음에는 성벽 내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시기는 대략 11세기 초반까지였을 것으로 추

40) 도시가 확대되기 전의 범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표지로는 시내 남쪽에 있는 과수원 길(rue des Vergeaux)이라는 도로를 들 수 있다. 이 거리 이름으로 볼 때, 도시의 남쪽은 오랫동안 농업지역으로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도시 남쪽으로 주거지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측된다.

인구의 유입은 12세기 초반까지도 계속되어 과거의 성채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인구가 그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었다. 사람들이 새로 거주하게 된 곳은 생뢰(Saint-Leu) 지구로서 성채의 북부, 즉, 솜 강의 만곡부였다. 성채의 남쪽은 점차 높아지는 지형인 데 반해, 성채의 북쪽은 솜 강이 만들어 놓은 충적토가 반원형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7개의 지류가 흐르고 있었다.<sup>41)</sup> 성벽 바깥에 거주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지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가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되었고 아미앵 주변의 질서 역시 자리를 잡아갔으므로,<sup>42)</sup> 이제 방어보다는 경제 활동에 유리한 북쪽으로 도시가 팽창하게 된 것이다. 북쪽의 생뢰 지구는 로마시대의 남북 간선 도로가 관통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솜 강의 지류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부두를 설치하거나 그것을 이용한 하상운송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여 동력, 즉 방앗간을 설치하기 쉬웠고,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염색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 지역 옆으로 채마밭 습지(Hortillonage)가 펼쳐져 있어서 로마시대부터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안전에 있어서도 성벽보다야 못하지만 솜 강이 둘러싸고 있어서 천연 해자(壕宇)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생뢰 지구야말로 상업, 공업, 농업, 방어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거주지로서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리하여 11세기 후반에는 이 지역에도 상당한 정도의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77년 기 드 폰티외(Guy de Ponthieu)가 주교에게 12개의 방앗간을 헌정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방앗간은 모두 생뢰 지구에 있었다. 방앗간의 존재는 도시의 발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즉 방앗간은 밀가루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43)</sup> 물론 아미앵에서 방앗간은 밀가루만을 빻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염료인 게드

41) Ed. Frézouls, *Les Villes antiques de la France*, t. 1, Belgique, Amiens, Beauvais, Grand, Metz(Strasbourg), 1982), pp. 57-63.

42) 아미앵-발루아 가문에 의해 백작권이 세습된 1000년 전후 한 세기 동안 아미앵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965년 아미앵-발루아 가문이 아미앵 백작이 된 이후 1077년 시몽이 백작 지위를 포기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백작지위는 안정적으로 세습되었다.

43) Ph. Wolff, "Les villes de la France au temps de Philippe Auguste", p. 656.

를 뺀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단 방앗간이 많다는 사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량에 있어서 많은 밀가루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즉 방앗간의 숫자로 미루어보아 이미 12세기 후반기에 생뢰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말이 된다. 1121년 작성된 다른 문서 역시 생뢰 지구로 들어오는 ‘대교(Grand-Pont)’를 “아미앵의 관문(porte Ambianensi)”이라고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sup>44)</sup> 이 문서로 보아 12세기 초반에는 생뢰 지구로의 인구집중이 완료되었으며 아미앵의 경계가 이미 생뢰 지구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뢰 지구 안을 들여다보면 도시의 확대에 관련된 사실들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지역의 발전은 강, 도로, 그리고 방앗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도시가 확대되는 데에 첫 번째로 작용한 요소는 강이었다. 가장 먼저 거주지가 형성된 곳은 큰 나루터(Grand Quay)와 작은 나루터(Petit Quay), 그리고 캉주 다리(Pont du Cange) 근처로서, 이곳에는 주로 선박업자, 운송업자, 하역 인부 등 하상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 큰 나루터와 작은 나루터가 원래의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점으로 보아, 완전히 새로운 거주지가 형성된 후 합쳐진 ‘쌍둥이 도시’가 아니라<sup>45)</sup> 구 시가지로부터 확대되는 양상으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두 번째 요소인 도로가 작용하여, 생뢰 지구를 관통하는 곡물 운송로(Chaussée au Blé)를 따라서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 운송로는 길게 보면 파리에서 플랑드르로 향하는 도로의 일부로서 로마시대에는 군사도로로 쓰였다가, 중세에 들어서 곡물 운송로로 쓰이게 된 도로였다. 따라서 이 길은 농업을 위한 도로였고, 이 길을 따라서는 이웃한 채마밭 습지에서 건너온 채

44) 이 문서는 외드(Eude)라는 어떤 기사(quidam eques, Odo nomine, Henricus filius)가 아미앵의 노트르담 성당에 기부를 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그 문서 마지막 부분에 “모두에게 알리노니 그 토지는 대교(magnum pontem) 근처의 아미앵의 관문(porte Ambianensi que est ad magnum pontem), 즉 한편으로는 도시로부터 나오고 다른 편으로는 들어가는 아미앵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온다. A. Thierry, *Recueil des monuments inédits.*, t. 1, no. 5.

45) 생캉탱의 경우 이러한 쌍둥이 도시에 해당한다. 원래 로마시대부터 있었던 도시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수도원이 설립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이름도 로마시대의 ‘비로만두오름(Viromanduorum)’에서 성자의 이름인 ‘생캉탱’으로 바뀐 것이다. 대신 비로만두오름, 즉 베르망두아라는 이름은 생캉탱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소상이나 청과상들이 거주했다. 12세기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직업은 염색업이었다. 비록 염색공들은 하운업자나 채소상보다 뒤늦게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이 지역의 수많은 방앗간과 풍부한 물을 이용한 염색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직업집단이 되었다. 특히 염색업은 행굼과 건조과정을 반복해야 했으므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sup>46)</sup> 이에 따라 하운업자나 청과상이 구(舊) 시가지 가까운 곳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데 비한다면 염색공들은 훨씬 넓은 지역에 걸쳐 조밀하게 거주하게 되었다. 결국 12세기 후반에 들어서 생뢰 지구는 상공업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일부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아미앵이 중세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은 주변 농촌에서의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 증가 및 포화상태,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었다. 유입된 인구가 주교 교회를 중심으로 거주함으로써 거주지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11세기 전반까지는 주로 성벽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및 질서의 회복으로 성벽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강과 도로를 이용한 운송업 종사자나 이웃한 야채재배 습지에서 나오는 채소와 청과를 판매하는 상인이 주된 거주자였고 거주 지역도 구 시가지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다. 즉 12세기 초까지는 농촌과 유사한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12세기 후반부터 방앗간과 물을 이용하여 염색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고 경제활동의 중심 역시 수공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 V. 결 론

아미앵은 로마에 의해 ‘숨 강변의 건널목’로부터 하나의 로마 도시로 발전했다. 갈리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미앵 역시 로마와 똑같은 구조의 격자형 도시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건설된 로마식 도시에는 광장, 경기장, 목욕탕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도시화는 로마가 갈리아 전체를 로마의 일부로 조직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갈리아의 로마화는 로마의 군사도

46) M. Héren, “Technique et vente de la draperie amiénoise à la fin du Moyen Age”, *Revue du Nord*, t. 24(1938), pp. 5-28; E. Perroy, *Le travail dans les régions du Nord du 11<sup>e</sup> siècle au début du 14<sup>e</sup> siècle. Les cours de Sorbonne*(Paris, 1962), pp. 59-82.

로를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론 강을 거슬러 올라가 브리타니아에 도달하는 길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이 도로 상에 아미앵이 있었던 것이다. 갈리아 북부의 다른 도시들 역시 이 도로의 연결점에 건설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대 도시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로마 제국 전체를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로마의 의도에 의해 제국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갈리아 북부의 도시들은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아미앵은 브리타니아 주둔군의 배후 기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브리타니아가 로마 제국의 영토로 남아 있는 동안 번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 도시가 그대로 중세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로마 제국 말기부터 도시의 영역은 축소되어서 원형 경기장 일대 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로마 도시로서 가지고 있었던 번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인구가 모여들게 된 것은 그곳이 로마 도시여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교회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작용하여,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것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인구가 점점 많아지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고, 이것은 다시 인구를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 시대 성벽 내에 국한 되어 있었고, 그 성벽 내부를 아미앵의 인구가 채워나가는 데에도 오랜 세월이 걸려서, 11세기에 이르러서야 성벽 내부 공간이 채워지게 되었다. 봉건사회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미앵은 전형적인 봉건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아미앵은 대제후들의 권력에 둘러싸임으로써 어떤 제후 권력도 형성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미앵 백작은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세 도시의 특징은 상업의 부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업도시라는 데에 있는데, 아미앵은 숨강을 이용한 하상운송의 중심지로서 주변 농촌의 생산물이 집결되는 경제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한 도시는 로마시대의 도로망을 잃어버리고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볼 때, 고대 로마 시대이건 중세 시대이건 아미앵이 도시로서 발전하게 된 요인은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넓은 축적으로 보면, 파리-플랑드르를 잇는 동서간 교통과 잉글랜드-상파뉴를 잇는 남북간 교통이 아미앵에서 교차된다. 좁은 축적으로 보면, 숨강의 흐름이 아미앵에 이르러 유속이 느려지므로 부두를 설치하기 쉬워서 숨강 일대의 하상 교통이 집결되는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도시와 중세 도시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도 로마 시대의 성벽 내부에서부터 중세 도시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두 도시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로마 제국 내에서 아미앵은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을 근거로 발전했던 데에 비해, 중세의 아미앵은 주변 농촌의 농업 생산력과 북부 프랑스의 상업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로마 제국 말기 이후 도시의 영역이 계속 축소되었고, 이를 회복한 것이 11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은 고대의 아미앵이 중세의 아미앵과 다른 도시였으리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남아있는 고대 도시의 유적 위에 쌓인 두터운 흙의 두께는 고대 도시와 중세 도시의 간격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와 도시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대 로마의 아미앵은 제국 전체를 연결하는 도시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었던 데 비해, 중세의 아미앵은 지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도시가 로마 시대의 성벽 내부에서부터 성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투고일자: 2008. 6. 30, 심사일자: 2008. 7. 31, 게재확정일자: 2008. 8. 10〉

주제어 : 로마 도시(Roman City), 중세 도시(Medieval City), 아미앵(Amiens),  
격자형 도시(Roma Quadrata),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아그리파 도로(Via Agrippa), 성벽(Castrum)

## 〈참고문헌〉

- 강일휴, 「서양 중세 도시사 연구의 시각과 쟁점」, 『사총』 제65호, 2007.09: 29-58.
- 카이사르, 율리우스, 『갈리아 전기』, 박광순 옮김, 범우사, 1997.
- 피렌, 앙리, 『중세 유럽의 도시』, 강일휴 옮김, 신서원, 1997.
- Bayard, Didier et Jean-Luc Massy, *Amiens romain: Samarobriva Ambianorum*, Amiens: Revue archéologique de Picardie, 1983.
- \_\_\_\_\_, Didier et Jean-Luc Massy, “Amiens romain: étude sur le développement urbain du 1er siècle av. J.C. au V<sup>e</sup> siècle ap. J.C.”, *Revue du Nord*, t. 64, 1982: 5-26.
- Cadoux, Jean-Louis, “La Picardie existe-t-elle dans l’Antiquité”, *Revue du Nord*, t. 78, 1996: 209-222.
- Derville, Alain, *Saint-Omer: Des origines au début du 14<sup>e</sup> siècle*, Villeneuve-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995.
- Duby, Georges,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 t. I, Paris: Seuil, 1983.
- Duchesne, Louis, *Fastes épiscopaux de l’ancienne Gaule*, t. 3, Paris: E. de Boccard, 1915.
- Fossier, Robert, *Histoire de la Picardie*, Toulouse: Privat, 1974.
- Foucart, Jacques, “L’église Saint Firmin le confesseur et la cathédral d’Amiens”, *Le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7, 1980: 301-310.
- Frézouls, Edmond, *Les Villes antiques de la France, t. 1, Belgique, Amiens, Beauvais, Grand, Metz*, Strasbourg: Association pour l’étude de la civilisation romaine, 1982.
- Héren, Marc, “Technique et vente de la draperie amiénoise à la fin du Moyen Age”, *Revue du Nord*, t. 24, 1938: 5-28.
- Leman, Pierre, “Des Alpes à l’Océan”,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fouilles archéologiques de l’Yonne*, no. 5, 1988: 29-34.
- Lemarignier, Jean-François, *La France médiévale*, Paris: Armand Colin, 1980.
- Massiet du Biest, Jean, *La carte et le plan considérés comme instruments de recherche historique*, Tours: Gibert-Clarey, 1954.
- \_\_\_\_\_, Jean, “Les châtelains d’Amiens de la maison de Flixecourt-

- Vignacourt, leur forteresse urbaine, leurs fonctions, leurs domaines urbains et ruraux”, *Revue du Nord*, t. 38, 1956: 143-145.
- Massy, Jean-Luc et Jean-Michel Desbordes, “Le castrum d’Amien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2, 1975: 55-61.
- \_\_\_\_\_, “Les origines d’Amiens essai de chronologie d’après les découvertes de céramiques ‘arétines’”, *Cahiers archéologiques de Picardie*, no. 7, 1980: 115-136.
- \_\_\_\_\_, *Samarobriva Ambianorum*, Paris: Thèse de l’Université de Paris IV, 1977.
- Niermeyer, Jan Frederik, *Mediae Latinitatis lexicon minus*, Leiden: E.J. Brill, 1976.
- Peltier, Henri, *Histoire religieuse de la Picardie*, Abbeville, 1961.
- Perroy, Edouard, *Le travail dans les régions du Nord du 11<sup>e</sup> siècle au début du 14<sup>e</sup> siècle. Les cours de Sorbonne*, Paris: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1962.
- Pietri, Charles, “Remarques sur la topographie chrétienne des cités de la Gaule”,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t. 62, 1976: 189-204.
- Thierry, Augustin, *Recueil des monuments inédits de l’histoire du Tiers Etats*, Paris: F. Didot, 1850-1870.
- Vasselle, François et Ernest Will, “L’Enceinte du Bas-Empire et l’histoire de la ville d’Amiens”, *Revue du Nord*, t. 40, 1958: 467-482.
- \_\_\_\_\_, “L’urbanisme romain à Samarobriva - Amiens”, *Revue du Nord*, t. 42, 1960: 337-352.
- Vasselle, François, “L’amphithéâtre romain d’Amiens”, *Hommages à A. Grenier, t. III*, Collection Latomus, t. LVIII, 1962: 1586-1600.
- Will, Ernest, “Amiens, ville militaire romaine”, *Revue du Nord*, t. 36, 1954: 141-145.
- \_\_\_\_\_, “Recherches sur le développement urbain sous l’empire romain dans le Nord de la France”, *Gallia*, no. 20, 1962: 79-101.
- Wolff, Philippe, “Les villes de la France au temps de Philippe Auguste”, Robert-Henri Bautier, dir., *La France de Philippe Auguste*, Paris: Editions du C.N.R.S., 1982.

## 〈Résumé〉

## De la Civitas romaine à la ville médiévale: le cas d'Amiens

Yong-Jin PARK

Amiens se développe d'un simple lieu-dit désignant 'le pont sur la Somme' à la plus grande ville dans la Gaule Belgique. Deux éléments essentiels fixent le destin d'Amiens: le noeud du réseau routier et son rôle militaire. La proximité de la Bretagne et de la Germanie fait hiberner César à ce lieu, Samarobriva, et passer le réseau routier d'Agrippa. A peine s'achève le réseau routier, la ville, accompagnée du commerce non seulement régional mais aussi lointain, croît rapidement et aboutit à son sommet au II<sup>e</sup> siècle. A partir du III<sup>e</sup> siècle, la crise commence, et la ville se réduit et s'enferme dans le *castrum*. Mais la ville maintient son visage militaire encore, parce que le *castrum* contrôle un noeud routier et une garnison s'installe. Avec les voies construites au Haut-Empire, le *castrum* constitue une partie de la base du Moyen Age.

Christianisation fait ranimer la ville et attirer les âmes autour l'église épiscopale, élevée à l'intérieur de l'enceinte(*intramuros*) au VI<sup>e</sup> siècle. Le processus de l'urbanisation, très lente, fait remplir *intramuros*, jusqu'au XI<sup>e</sup> siècle.

Considerant que les murs au Moyen Age, dit de Philippe Auguste, est fondés sur le *castrum* romain, on suppose qu'il y a une filiation directe entre deux ville, antique et médiévale. Et la géographie stratégique d'Amiens s'opère tout au long de l'histoire, tant antique que médiévale. Mais Amiens médiévale est plus le centre de la région alentour que le noeud de la réseaux routiers, *Via Agrippa*, et plus la ville commercial que la cité(*civitas*) militaire. Et l'épaisseur de poussière couverte sur le site archéologique n'est pas négligeable

## 〈Summary〉

From the Roman Civitas to the Medieval City:  
The case of Amiens

Yong-Jin PARK

Amiens develops from a simple place designating a 'the bridge over the Somme' to the biggest city in Gaul Belgium. Two key elements determine the fate of Amiens: the crux of the road network and its military role. The proximity of Britain and the Germania make Caesar hibernate at this place, Samarobriva, and roads Agrippa pass this point. Just establishing the road network, Amiens, accompanied by the regional and long-distance trade, grows rapidly and leads to its summit in the 2nd century. From the 3rd century, the crisis began, and the surface of the city is reduced and confined within the surrounding wall(*castrum*). But the city does not lose its military face yet, because the *castrum* controls a road junction and a garrison is settled in the *castrum*. With the road network built in Roman Empire, the *castrum* make up the base of the Middle Ages.

Christianization revives the city and attracts people around the Episcopal Church, built 'in the wall(*intramuros*)' in the 6th century.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s so slow that the surface within the wall is not filled until the eleventh century.

Considering that the walls in the Middle Ages, called the Wall of Philippe Auguste, is based on Roman *castrum*, it is assumed that there is a direct affiliation between two city, ancient and medieval. And the location of Amiens is always important throughout history, both ancient and medieval. But medieval Amiens is more the centre of the surrounding region than the strategic point of the road networks, *Via Agrippa*, and more the commercial city than the roman military city (*civitas*). And the thick dust, covered the archaeological site,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